한국언론학보
2022년 66권 1호 43~88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2.66.1.002
http://www.comm.or.kr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 활동과 정동 체험에 대한 사례연구

들뢰즈와 과타리의 '정동'과 '양식-역설'의 사유를 중심으로

최현경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A case study on video production activities and affective experiences of YouTube creator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Deleuze and Guattari's 'affect', 'bon sens', and 'paradoxa'

Hyeon-Gyeong Choi*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Jin-suk Kang**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ideo production activities and affective experiences of YouTube creators with disabilitie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alternative and paradoxical practices to overcome socially dominant perceptions about the disabled. To this end, we draw on Deleuze and Guattari's and Spinoza's thoughts on affect to analyze the affective experience in YouTube production activities. We then incorporate the notions of 'bon sens' and 'paradoxa' to discuss the problems in the dominant social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xplor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The study involved YouTube creators with disabilities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cusing on cases of video production activities. As a research method, an instrumental case study of Steak was selected. First, we looked at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from the disabled and the opportunity to produce YouTube videos.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felt a lack of social awareness. Unlike broadcasting, YouTube directly organizes, produces, and edits the lives of the disabled with less constraints in the range of themes. In addition, YouTube was not only a space for play and information delivery, but also included elements of communication, awareness improvement, and empathy through subscribers, comments, and communities. Second, the research participant analyzed the types of affect experienced

* zkwmak5@daum.net
** jskang1@cau.ac.kr, corresponding author

through YouTube.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emotions of sadness from malicious comments and overload due to high expectations. Affect is a variation of emotions with mobility from sadness to joy and from joy to sadness. Accordingly,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transforming the emotions of sadness back into emotions of joy. Finally,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s of social style and paradoxical practice through YouTube were analyzed. Some programs still perceived disability as being used only as a stimulating factor. Disabled people often appear in programs and movies, but still have not escaped the existing disability stereotypes. However, as various activities were possible through YouTube, the paradoxical practice of the disabled could be discover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roblems of social discrimination/exclusion and socially dominant ideas of the disabled through empirical examples through YouTube video production activities, and to find ways to realize the valu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to overcome them.

Keywords: Deleuze, disabled person, affect, Youtube, paradoxa

1. 서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인구 대비 유튜버 수 1위' 국가이며, 인구 529명당 1명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우, 2021, 2, 14).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IT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일반 개인도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고, 이용자는 동영상을 게시, 방문, 공유, 리뷰, 구독 등의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누구나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부각시킬 수 있게 되면서 대중들의 문화, 생활 속으로 빠르게 흡수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임옥희·조원일, 2018). 이러한 유튜브의 개방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소수자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 자기표현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은 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깨고 싶어 한다는(신진섭, 2019, 6, 18) 저항적 욕망이 한층 더 존재한다. 그러면 과거 장애인들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어 왔을까? 과거 주류 미디어에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기보다 부정적으로 묘사(희화화)하거나 초능력자로 과잉해석했고(강진숙·김동명, 2019),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을 타자화하는 경향(양정혜·노수진, 2012, 2013)이 드러났다. 이때의 미디어는 주류사회의 시각에서 소수자를 정의하고 그려낸다. 이후 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이 어렵고 공간상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에 구분 없이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유튜브가 1인 미디어라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유튜브 활동은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주체적인 사회 참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들이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개월〉, 〈함박TV〉, 〈브래드박〉, 〈노래하는 민이〉, 〈동훈타파〉, 〈마누사마TV〉, 〈굴러라구르님〉, 〈위라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유튜브를 통해 일상 브이로그(V-log), 여행 브이로그, 실시간 방송 등의 콘텐츠들을 자신의 개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신진섭, 2019, 6, 18). 유튜브에 게시되는 다양한 콘텐츠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이용자들의 취향과 관심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달콤살벌 농인부부〉는 농인 부부의 출산 후기를, 〈위라클〉은 중도 장애인의 삶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에 의할 때, 유튜브에서 자신의

장애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둘러싼 혐오와 편견들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다(조현지, 2019, 8, 1). 이처럼 유튜브는 장애인으로서 겪는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풀어 콘텐츠를 제작·공유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영상 제작의 주체가 되어 콘텐츠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미디어 재현의 전형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욕망을 생성하며 정서의 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해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 경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의미가 있다.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는 개인적 기록과 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을 내포하고 있다(강진숙, 2010). 그중에서 정보공유와 연대의 길은 장애인들의 일상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간의 미디어 연대 구성을 가능케 한다. 미디어는 편견,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수도 있는(양정혜·노수진, 2013) 힘을 가지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미미했다.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오성은·김한성, 2021), 장애 수용도에 대한 연구(조예진·현명호, 2021) 등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연구는 장애인의 OTT접근성(이영희·최영묵·진승현·조용하, 2021), 시각장애인의 페이스북 이용(박정숙·김용찬, 2020)이 있고,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이미지 연구(강주현·임영호, 2011; 양정혜·노수진, 2012, 2013), 장애인 방송의 공익광고 효과(이영희, 2021), 장애인 인권동호회 영상제작자들에 대한 연구(강진숙·김동명, 2019), 장애인 유튜버의 미디어 생산 경험에 대한 연구(윤형·조은총, 2020)가 있다. 특히 장애인 미디어 영상 제작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들의 삶과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장애인이 영상 제작을 하면서 체험하는 정동의 요소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양식과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역설적 사회적 실천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어떻게 정동체험을 하고 있고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양식의 문제점이나 역설의 실천을 행하는 사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피노자(Spinoza)의 정동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동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정서 변이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인 질 들뢰즈(Gilles Deleuze)도 욕망을 인간의 본질 자체로 설명한 바 있다(Deleuze, 1978/2005). 이를 통해 유튜브 영상 제작과 소통이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어떠한 정동체험과 의미를 체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는 이러한 소수자 주체들을 다양체로 바라보고, 욕망을 통해 역설의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애인들을 둘러싼 미디어적 사회양식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역설의 실천적 행위로까지 나아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양식과 역설을 통해 정서의 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생성의 욕망을 통해 역설의 실천이 가능하기에 두 사유를 함께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동을 체험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디어의 사회양식을 인식하고 역설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주체적 행위와 그들이 실천한 역설적 행위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 본 논의의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1) 정동의 사유

정동(affectus)의 사유는 스피노자, 펠릭스 과타리, 질 들뢰즈, 질베르 시몽동, 브라이언 마수미, 이토 마모루 등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정의 및 논의되어 왔다. 스피노자는 정동을 '정동하거나 정동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는 신체들이 정동적 관계 속에서 변이와 이행을 겪으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기보존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Massumi, 2015/2018).

스피노자의 정동의 논리는 심신평행론(parallélisme)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평행론에 근거해 정신과 신체의 위상을 동등한 것으로 보았다(Deleuze, 1981/1999). 스피노자는 유물론자로,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거나 정신에 종속되는 전통적인 관념론적 철학의 모델과 결별한다(연효숙, 2015). 그의 〈에티카〉 3부, 정리 2의 주석에서 신체가 능동이면 정신도 능동이고, 신체가 수동이면 정신도 수동이 되는, 즉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어떠한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Spinoza, 1675/2014). 평행론의 실천적 의미는 전통적인 원리를 전복하는 지점에 있다. 신체와 정신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정신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신체'를 하나의 모델로 정립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스피노자(Spinoza, 1675/2014) 〈에티카〉 3부 명제 2의 주석에서 "우리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32쪽)"고 하였다. 즉 신체는 어떤 변용(affection)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Deleuze, 1969/2019). 신체의 변용은 의식에 의해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신체와 정신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정동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정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욕망, 기쁨, 슬픔이다(Spinoza, 1677/2007). 욕망이 달성되

면 기쁨이 생기고, 상실되면 슬픔이 생긴다. 욕망은 각 개인의 본성 혹은 본질이다. 스피노자는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정신적 측면에 해당될 때는 이를 의지라 불렀으며, 이 노력이 정신과 신체 모두에 해당될 때에는 욕구라 불렀다(Spinoza, 1677/2007). 이 욕구가 다시금 인간 존재에 의해 의식될 때 이는 욕망, 곧 인간의 본질 자체가 된다. 존재를 지속하려는 노력은 그것이 정신과 신체 모두와 관련되는 한에서는 욕구와 욕망인 것이다. 이 욕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이며,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스피노자(Spinoza, 1675/2014)의 〈에티카〉 3부 6 정리에 따르면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노력한다(168쪽)"고 주장하였다. 이 명제는 스피노자의 사상을 '긍정의 철학'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핵심 개념이며(김은주, 2016),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코나투스(conatus)'의 원리를 의미한다. 코나투스는 행위능력을 증가시키며 기쁜 감정들을 체험하려는 노력이며, 여기서 행위능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관계들을 통해 변용능력은 유지한 채 변화하게 된다(Deleuze, 1981/1999). 이 노력은 가치의 기반이자 원천인 존재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감각과 정서들을 긍정하고 결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강진숙, 2019).

그러면 정동과 정서(affectio)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스피노자는 〈에티카〉(Ethica)에서 정서와 정동[1]의 두 단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스피노자(Spinoza, 1677/2007)에 의하면 정서가 슬픈, 기쁜, 어두운 어떤 상태의 정태적인 것이라면, 정동은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131쪽)을 의미한다. 즉 정동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정서가 '변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정서의 변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은 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정서에서 다른 정서로의 변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다른 정서로 변이될 수 있다.

정동은 변이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변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스피노자(Spinoza, 1975/2014)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자체의 활동능력이 증대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다(160쪽)." 즉, 정동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다른 상황들과 연결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과타리와 들뢰즈에 따르면 정동은 '횡단적

1) 정동 개념은 'affect'의 단어로 정서'affection'과는 다른 표기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동을 번역함에 있어 정서와 정동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강진숙, 2014, 2015). 하지만 현재는 정서와 운동을 합친 '정동(情動)'으로 번역하고 있다. 처음 '정동'에 주목했던 스피노자와 그를 보다 정교화했던 들뢰즈(Deleuze, 1981/2001)의 논의 이후로도, 정동 개념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transversal)'이다. 정동은 어떠한 사회적 규범의 통념들을 규정짓지 않고, 일반화된 관념들을 넘어서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또한 정동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세계를 진행 중인 변형의 과정으로 이해한다(Simondon, 1958/2011). 이러한 변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행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으로의 힘'으로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성 속에서 파악된다. 정동의 횡단적인 힘이란 표준화된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경계 짓는 어떠한 사회적 통념들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노자에게 역량은 변용될 수 있는 능력과 동일한데, 들뢰즈의 정서-행동은 바로 변용될 수 있는 표현 방식들을 모두 가리킨다(이찬웅, 2011). 그러면 들뢰즈는 왜 정동에 주목하는가? 공명의 사유는 스피노자(Spinoza)의 '정동'개념과 연결하여, 기계와 존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쁨, 슬픔 등의 정서적 변이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진숙, 2014). 또한 공명의 잠재력에는 타자와 소통할 통로를 열어 놓고자 하는 '공감'과 '배려'가 어느 정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연효숙, 2015).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공감할 때 '나'와 '타자'라는 감정적인 교류와 같은 공명이 발생하게 된다.

정서의 변이는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에서도 변이될 수 있다.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 2015/2018)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경계를 흐리며, 디지털화로 인해 신체적 정동이 정보에 신체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점은 〈정동정치〉에서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정동이 미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토 마모루(伊藤守, 2013/2016)도 〈정동의 힘〉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정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예시[2]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미디어에서 다루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 기쁨과 슬픔의 정서의 변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미디어가 정동적 차원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assumi, 2015/2018). 예컨대, 미국 9·11 사태를 통해 미디어가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 공포스러운 혹은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만들고, 어떠한 감정을 확산시키거나 애국심 같은 공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다. 과거 사회적인 공간에 정보를 발신하는 행위는 제작자나 일부 사람에게만 가능했지만,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SNS를 통해 누구나 정보발신이 가능해졌다(伊藤守, 2013/2016). 유튜브는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공간과 새롭게 창

2) 이토 마모루는 〈정동의 힘〉 4장에서 '2007년 일본의 '가메다 부자(龜田父子)'사건을 통해서 본 '민의(民意)"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미디어들이 상호 촉발되며 공진하고 연결되어 한 사건을 통해 보는 이의 신체에 무언가를 촉발하게 한다고 보았다(伊藤守, 2013/2016).

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유튜브의 댓글, 좋아요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영상 제작자와 시청자들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강진숙(2015)은 스피노자의 사유를 바탕으로 이용자들 간에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동을 통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의 생애사적 경험과 새로운 저항적 주체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강진숙과 김동명(2019)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영상제작자와 활동가들이 다수의 사회적 원칙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이야기를 직접 미디어에 투영하는 행위를 통해 건설적 욕망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개인의 정서를 주체화하기보다는 타자화되었고, 장애인의 욕망도 다수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정동체험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정서를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정서의 변이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정동을 체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소수자성을 지닌 장애인이 직접 드러내는 주체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양식과 역설의 논의

들뢰즈는 양식과 역설의 상반된 두 개념을 설명하며 이후 '차이의 생성'을 논한다. 들뢰즈는 양식을 '독사(doxa)'로 통념, 이데올로기, 상식, 코드 등으로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의견으로, 역설은 '파라독사(paradoxa)'로 한 사회, 한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식과 상식을 당연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양식은 일방향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역설은 양방향이나 복수의 방향으로 의미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분석적 차원에서 볼 때, 양식과 역설은 사건-의미의 방향성과도 관련되는데, 사건은 '의미(sens)'와 '무의미(non-sen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설과 의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공통의 방향/의미 혹은 옳은 방향/의미이다. 공통의 방향은 오감의 일치를 뜻하지만, 옳은 방향은 한 시대의 통념, 암암리에 좋은 방향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실제로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규정하고 주체를 그 방향에 선택하게 만들었다(강진숙, 2019). 역설과 무의미는 상식과 양식을 전복시키지만, 통념과 상식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통념과 상식을 한 갈래로 하는 잠재성의 장을 보는 것이다(〈Table 1〉 참조).

Table 1. Bon sens and Paradoxa

Sortation	Bon sens	Paradoxa
Definition	Conventional wisdom governing a society: Common sense, doxa	various paradoxical reasons and actions: multiplicity of practice
Meaning production direction	one way	two ways
Analysis focus	coding and power	desire and escape

1, Note: Kang, J.-S. (2019). *New Media thought and Culture*. Seoul: Now. p. 209. All rights of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are protected.

양식이 코드화와 권력의 문제를 규명한다면, 역설은 욕망과 탈주의 문제를 다루며 차이의 생성과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 소외, 타자화, 신격화 등의 경우,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코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미디어 양식을 계열화한 경우, 과거에는 도움, 필요한 존재, 타자화 등의 의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역설적 미디어 재현으로 인해 주체성, 주도성 등 과거와 구별되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들이 역설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미디어, 유튜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삶의 의미가 비물체적인 언어와 명제로 포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정체성과 능동성이 특정한 인물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접속을 통해 재현되는 언어, 언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과 역설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역설 속에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양식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는 사회적 통념이라면 역설은 하나의 방향을 포함해 여러 복수의 방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의 사회적 실천은 양식의 규범적 제도적 측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천의 과정에서 양식화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정립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미디어에 나타나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양식은 무엇이 있을까. 양정혜와 노수진(2012, 2013)은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사랑의 가족〉에 등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묘사 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의존성을 부각하고 장애인을 객체화, 주변화 시키는 경향이 보였다. 과거 장애인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이 편집·기획·연출을 주도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장애인 스테레오를 쉽게 노출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장애인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말해지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공간에서도 타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2022)에 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장애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제약을 넘어서 사회적 억압의 의미맥락을 갖는다고 할 때, 장애인을 타자화 시킬 수 있다(전지영, 2021). 이 점은 장애인을 '도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거나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장애라는 것으로 예속시켜 마치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강진숙·김동명, 2019). 주의할 점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불편을 제도적, 물리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선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단순히 시혜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 시혜와 연민의 시선은 장애인의 소수자성을 부각하고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들뢰즈의 사건의 철학은 역설을 사유하는 것에 있다. 역설을 사유하는 주체는 특정 기준에 고착화되기보다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맥락에 맞게 즉각적으로 현실화하는 주체로 설명된다. 이는 들뢰즈에게 있어 사건이란 동일함의 반복이 아닌 변용의 반복이기 때문이다(오창호, 2014). 그는 역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차이의 생성을 역설한다. 따라서 역설의 세계에는 늘 차이가 발견되고 사건-의미의 방향성은 양방향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음악가가 화음을 만드는 방식이 기존의 형식에 위배될 경우 이를 불협화음으로 여길 수 있지만 새로운 창작으로 가는 길로 여길 수도 있다(이정우, 1998). 이처럼 양방향의 가능성을 열어준 공간에서 고유의 질서가 타파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역설로 볼 수 있다. 철학적인 언어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독립된 개체에 작용했을 때, 그것은 주체의 욕망으로 표현된다. 즉 동일성 성격을 가진 사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기존의 기호적 의미를 와해시킴으로써 주체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장세영, 2019).

최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이전의 고착화된 이미지들을 전복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다〉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비춰주며, 장애인 이미지 재현에도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사회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미미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통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양식, 편견, 차별 등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중 및 공공 미디어에서도 장애를 둘러싼 양식을 벗어나고자 장애인을 주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설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기존 양식을 벗어나려는 미디어들을 도식화하면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s of disability-related media

genre	name of the program	date	the organizer / Genre	contents
TV program	Our neighborhood Peter fan	2018.09.12. ~ 2019.12.26	MBC	A program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sabled
	Barrier-free talk show Nothing special	2019.09.23 ~ 2020.02.17	EBS	A program that depicts a world where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live together
Radio, Padcast	2021 Otism Talk show	2021.10.08. ~ 2021.10.28	HeartHeart Foundation	The lives, dreams, and challenges of 8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Youtube Talk show 'RalTV'	2021.04.15. ~2021.04.22	Miral welfare Foundation	A talk show about disability
	A disability talk show with Dongjak	2021.04.20	Dongjak-gu Support Center for family with Disabilty & DongJak FM	Day of the Disabled Disability empathy event
	The world this person hears	2020.09.22	Ulsan MBC	A radio documentary about how to communicate beyond the walls of hearing loss and hearing impairment
Webtoon	I'm deaf	2018	Naver Webtoon	The story of hearing impaired people living in Korea
Movie	My Annoying Brother	2016	Comedy	His younger brother Doo-young (Do Kyung-soo) has an unexpected accident during the game. The contents of the fraudulent release of tears with his brother Ko Doo-sik (Cho Jung-seok) after hearing this news
	Two Lights: Relumino	2017	Romance	The story of Sooyoung with the same visual impairment meeting with Insu, who is gradually losing his eyesight
	Inseparable Bros	2019	Drama	Older brother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younger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re not real brothers, but they've been living together for 20 years. "Special Brothers".
	Bori	2020	Drama	Bori, an 11-year-old girl living in a sea village, is the only family member to hear. Bori felt lonely among her family members who communicate in sign language.… A kid who wants to lose her voice., It's about Bori's special wish.
	you are so precious to me	2021	Drama	Daily life with fake father of daughter "Eunhye"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영화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서사'를 '극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선에 해당하며,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관점이다(전지영, 2021). 프로그램 중 다큐에 나오는 장애인의 모습은 이전보다 다양하게 비추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주체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되어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박성애, 2020). 장애를 극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과 소외, 억압을 가하는 시선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소수자 운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타자화 하는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난민, 여성, 노인과 같은 소수자들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82/2020)는 일반화된 단어가 '권위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상징 권력'의 한 요소임을 말한 바 있다. 결국 소수자들을 둘러싼 장애인들의 양식은 미디어의 권력에 의해 생성된 것일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경우,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직접 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의 양식들을 전복시키는 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장애 스테레오타입은 장애인들 스스로에게도 체화되어 있다. 즉, 장애인들에 대한 서사는 기존의 양식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역시 비장애 전문가가 장애인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장애인은 타자로서만 존재하게 된다(전지영, 2021). 유튜브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주체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나아가 다른 장애인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어 타자화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를 보는 것이 중요한 점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의 상당 부분이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양정혜·노수진, 2012). 즉, 미디어는 어떠한 개체에 대해 선입견을 씌울 수 있고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튜브가 자칫 장애를 극복하는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들 수 있다. 장애 유튜브 콘텐츠는 '장애인이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다루는 모든 콘텐츠'라고 말해야 한다. 장애인이 제작하는 영상의 주체는 언뜻 장애인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인들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환원론적 모순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심영의, 2014)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상 및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는 공간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 '장애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작용하는 것

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3) 장애인들의 유튜브 영상 제작 사례

유튜브는 개인방송, 1인 미디어, 즉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 소비되는 콘텐츠이다(유수정·이영주·유홍식, 2018).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편집·공유·배포 등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나 생활, 철학적 관점 등을 콘텐츠화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기존의 공영/공공 방송은 방송사들만의 특권 영역이며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유튜브는 커뮤니티나 영상의 댓글을 통해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지닌다(정보라·김성철, 2013). 유튜브와 같은 1인 장애인 채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기 표현과 결정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주된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이혜인, 2020, 09, 11).

유튜브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정현·김보영, 2018). 먹방, 리뷰, 여행, 일상생활 등의 콘텐츠 체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생산자 역할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노영은·류웅재, 2020). 문화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은 이전의 장애 억압적 사회 구조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에 대한 자부심을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예컨대, 농인들의 관계에서 농문화는 수화라는 다른 언어체계를 통해 문화정체감을 얻고 있었고, 척수장애인들의 경우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모임을 통해 문화정체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전지혜, 2013). 이러한 점에서 억압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향유한다는 점을 본다면 유튜브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 가능하다. 유튜브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구독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댓글로 소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수정 외(2018)는 1인 미디어의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다양성, 현장성, 일상적 소재, 참여와 팬덤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일상적 소재는 개인의 생생한 일상을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유도하고 편견개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김문근, 2019).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 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소소한 모습과 그 속에서 장애를 자연스럽게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는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장애인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 중 〈굴러라구르님〉은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2019년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 서울캠퍼스에서 '유튜브 다양성 크리에이터 편'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지

우, 2019. 1. 23). 2021년 3월 4일 '착한 크리에이터'들과 바람직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굴러라 구르님〉, 〈원샷한솔〉, 〈위라클〉, 〈틱돌이〉, 〈브래드박〉,〈시시각각 hourly〉, 〈발달장애 진우의 자립생활〉 등 여러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유튜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일상적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상적인 콘텐츠 유형은 일상, 여행, 소통, 게임, 노래 등이며, 직접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가파른 언덕이나 지하철 이용에 대해 불편한 사항들을 적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보도블럭 등의 불편함 등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콘텐츠로 풀어낸다. 이러한 점은 장애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전달이다. 뷰티, 먹방, 의류 등과 같이 리뷰성 콘텐츠처럼 장애 보조기기에 대해 리뷰하거나 자신이 쓰고 있는 기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신체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유튜브에서는 신체적 장애유형을 가진 유튜버들이 대부분인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얼굴 노출이 거의 없는 팟캐스트와 같은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보다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채널 정체성 또한 장애보다는 일상적인 일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서 쉽게 타자화되는 노인,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경우에도 유튜브가 하나의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유튜버 제작 및 정동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차별과 타자화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특성을 번복 할 수 없는 요인인 인종·연령·신체적 특징·성별 등이 있고, 빈부·학력·지위 등의 변화가 가능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다(오혜경, 2000). 장애인의 경우 고유요인과 사회요인 두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배화옥, 2012).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쉽게 타자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장애인들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만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의 큰 범주화하여 장애인을 둘러싼 양식적 요소들과 역설적 행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유튜브는 장애인들을 말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양정혜·노수진, 2012)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자립적인 주체로서 바라보고 장애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장애인 차별/배제의 경험을 했고, 어떠한 계기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가?

연구문제 2.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 어떻게 정동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연구문제 3.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양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 어떠한 역설적 실천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과 영상 제작을 통해 어떠한 정동체험과 사회적 양식을 인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설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연구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적 전통에서부터 비롯되어온 방법론(강진숙, 2016)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특히 특정 사회적 이슈나 쟁점을 바탕으로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유튜브는 하나의 사건과 의미를 생성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특정 경험에 대한 정서의 변이를 일으키며 양식의 통념적 방향과 역설적 행위의 실천이 가능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험에 기반하여 특이성을 지닌 통합적인 체계를 분석하는 스테이크(Stake, 1995/2008)의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를 택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활동 경험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제작, 촬영과 출연 경험이 있고,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의도적 표집(intentional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진행하였다(Cresswell, 2007/2010). 의도적 표집은 개인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개인의 특정 사례에 대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유튜브 채널 검색을 통해 찾은 유튜브 중 이메일이 오픈되어 있는 곳 40곳에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메일 답장을 한 유튜버 16명 중 10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그중 2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자 7〉과 〈연구참여자 11〉을 소개받았다. 본 연구에 총 12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본인의 유튜버 채널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6, 12〉를 제외하고,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얼굴, 직업, 장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장애유형 중 '( )'내용을 추가 작성한 경우는 연구참여자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였다. 유튜브 제작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주 콘텐츠 유형은 각 유튜브에 '동영상'을 정리한 부분을 보고 작성하였다. 〈연구참여자 4〉의 요청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명확한 나이를 밝히지 않고 세대로 작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유형은 보건복지부(2021)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에 있는 '장애인의 분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또한 장애유형에 대한 내용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	Age	Gender	job	YouTube promotions	Face open	Disability type	The main content type
1	50s	male	Instructor	5years	0	physical disability (myelopathy)	Travel, Vlog, Wheelchair review,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etc.
2	30s	female	Writer	3years	0	hearing impairment	Travel, Vlog, Collaboration, Contents related to the hearing impaired etc.
3	20s	male	YouTuber	2years	0	hearing impairment	Sign language, Vlog etc.
4	20s	female	YouTuber	6years	0	hearing impairment	Travel, Vlog, Mukbang, Dance, Music vedio, Book review, Illustration, etc.
5	30s	male	Web designer	1year 6months	0	Mental disorder (Tourette's disorder)	Vlog, Game, ASMR, Sing, A real-time broadcast etc.
6	30s	male	Blogger, office worker	2years	X	visual impairment	Mukbang, Food review, A real-time broadcast, Cooking etc.
7	20s	male	Instructor for improving awareness of the disabled	1year 6months	0	physical disability	Travel, Vlog, Challenge etc.

Research participant	Age	Gender	job	YouTube promotions	Face open	Disability type	The main content type
8	20s	male	Model	2years	0	Brain lesion disorder	Vlog, A video of me appearing on a program etc.
9	20s	male	university student	2years 6months	0	hearing impairment	Travel, Vlog, sign language, Assistive device review etc.
10	20s	male	Video freelancer	3years	0	hearing impairment	Travel, Vlog, Review etc.
11	40s	male	nstructor	2years 6months	0	physical disability (myelopathy)	Vlog, Family vedio, Rights of the Disabled etc.
12	30s	female	office worker	1year	X	physical disability	Travel, Vlog etc.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대1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했고, 인터뷰는 면대면(face to face) 인터뷰, 영상통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 서면(메일, 카카오톡)인터뷰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1, 2〉는 2019년 9월부터 연구자와 인터뷰를 평균 3회 진행했고, 그 전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2회씩 했기 때문에 이미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에 진행하기 전 라포형성을 위해 따로 연락을 취하였다. 1차 인터뷰는 12명의 연구참여자 가운데 〈연구참여자 1, 3, 7, 9〉는 영상통화 인터뷰, 〈연구참여자 2, 10, 12〉는 서면(메일, 카카오톡) 인터뷰, 〈연구참여자 4〉는 면대면 인터뷰, 〈연구참여자 5, 6, 8, 11〉은 음성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추가 인터뷰는 전화 인터뷰와 서면(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9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연구참여자 인터뷰 횟수는 평균 3회 이상 진행했다.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성은 인터뷰와 참여 관찰 과정에서 적용되는데, 연구자가 윤리 규범이 지키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게 된다(강진숙, 2016).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2회 설명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서만 사용되며 연구가 끝난 뒤에는 모든 내용이 파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면대면, 영상통화, 전화 인터뷰의 경우에는 모두 내용을 녹취하고 추후 한글 파일로 정리하였다. 서면 인터뷰와 추가 인터뷰 내용도 녹취를 하거나 한글에 옮겨 적는 방식을 채택하여 취합하고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반영하기 위해 덴진(Denzin)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덴진의 삼각검증법은 자료원, 연구자, 이론, 방법론의 총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Denzin, 1978).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연구자 삼각검증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디어교육 박사학위자이며 대학에서 미디어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1명을 통해 연구결과를 의뢰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 연구결과

1) 유튜브 활동의 계기와 차별/배제의 경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장애인 차별/배제의 경험을 했고, 어떠한 계기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약 2년 이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고, 영상 촬영이나 사진 감상 등에 관심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미디어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해 부담없이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장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일상 브이로그와 장애인식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었다. 기존 미디어와 달리 유튜브는 장애인이 타인에 의해 표현 대상이 되기 보다 스스로 콘텐츠 제작의 주체가 되는 자기표현 활동과 다양한 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먼저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인식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또 다른 진술로는 장애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 정도는 각기 다르다. 예컨대, 청각장애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이 있다. 즉 수화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시각장애의 경우도 광각장애, 색각장애, 굴절장애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수어를 희화화하고 귀머거리, 벙어리 같은 단어를 남용, 오용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산(山)'이라는 수어가 있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수어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구화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수어만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편견인 것 같고요."
>
> 〈연구참여자 2〉

> "한국에서는 신체적 결함만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사회가 불편함이나 핸디캡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장애'입니다.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장애'입니다."

〈연구참여자 3〉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가 겪은 사회적 차별/배제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특정한 집단이나 소수자적 요소를 가진 집단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은 사회적·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병원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임에도 차별을 경험한 사례를 진술하였다.

"틱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틱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발 뼈가 정말 심각하게 으스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이 근처 병원의 응급실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틱장애를 앓고 있다는 말을 들은 병원에서 저를 거부하더라구요. 틱장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연구참여자 5〉

"제가 검사를 받으려고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었는데요. 검사 도중 갑자기 주치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검사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써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진료를 받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방에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커튼을 치고 검사를 받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실험대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녹음을 못했던 게 후회가 많이 돼요."

〈연구참여자 7〉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제가 사진을 올리면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저는 그 글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내가 힘을 내야 되나?'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편견이죠. 응원받으면 좋지만 힘낼 필요는 없거든요. … 그래서 댓댓글에 '저 안 힘든데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럼 괜히 또 '그냥 걱정 되어서 댓글달았어요'이러면 '뭐가 걱정 돼요?'이러면서 댓글달고.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기분은 나쁘잖아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하였지만 이를 사건화하거나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방송에 출연 경험이나 제안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방송출연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거절사유를 밝힌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삶'을 묘사하기 보다는 '장애'라는 요소만 부각시키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이 주체가 아닌 장애만을 부각시키는 미디어 재현은 장애인들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휴먼다큐 출연 제의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아직도 판에 박힌 형식을 원하는 곳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스스로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장애 극복 감동 스토리의 주연 이미지를 씌워주려는 몰상식한 관계자들이 싫어서 출연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3〉

"출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방송 쪽에서요. 저는 거절했던 게 저도 몰랐는데 각본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일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출연할 의향도 있었는데, 좀 더 슬픈 이야기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산다라는 극적인 연출도 넣어야 하고요. 대본은 아니더라도 큼직한 멘트는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럴 거면 배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거든요. 그 쪽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해야 후원도 들어오고 모금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방송을 보고 따로 연락이 와서 계좌 달라고 해서 후원을 한대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찍어야 한다.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한번 찍자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6〉

"대부분 섭외가 들어오는 게 다 다큐쪽이거든요. 너무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이미지가 후원을 받아야 하고, 후원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를 좀 예능에도 많이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능에 나가면 밝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8〉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재현된 장애인들의 모습은 자극적이거나 불쌍한 연출적 요소들이 있

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차별들과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 '개인의 삶'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자 영상 제작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한 것에 대한 공유, 장애에 대한 정보 공유, 스스로 한계의 도전한다는 것의 이유를 가지고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 만드는 콘텐츠들은 이동권, 여행에 관련된 걸 담고 있고요.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못 타서 촬영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동을 하는데 환승역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경험은 어두운 터널에 딱 혼자 가운데에서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런 느낌.. 역무원 있는 곳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 그게 몇 번 그랬어요. 아~이거 다음에 와서 또 헤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자 그래서 촬영을 한 거죠.."

〈연구참여자 1〉

"1차원적으로 든 생각은 '내가 청각장애 있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다'예요. 청각장애에 관련된 콘텐츠가 생각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불편함, 힘든 점을 겪고 있어요.'라는 걸 알리는 차원이라든가 다른 청각장애인도 알았으면 하는 정보들, 예를 들면 복지카드에 대한 혜택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알리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4〉

"블로그를 오래 했어요. 취미생활 겸으로 맛집이나 음식을 리뷰하는 걸 블로그에 올리다가 여기는 너무 시장도 작고 수익을 떠나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저 혼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튜브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재미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내 스스로 한계에 도전해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이 유튜브를 선택한 이유는 유튜브가 상호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며,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인의 이야기'와 '리얼한 모습'은 현 미디어에서는 찾기 어려운 편이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모습은 비장애인에 의해 재편집되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주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노출되고 있었고, 그것마저 〈연구참여자 10〉의 진술대로 '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유튜브는 장애인 스스로의 신념이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고, 타인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었다.

"제 유튜브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 자체 날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복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보니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정도요"

〈연구참여자 2〉

"저한테 유튜브란 희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 불편하긴 해도 장애 없이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보통 장애인들은 미디어 밖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서울에 장애인들이 보이더라도 진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7〉

"일하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뭐 해달라고 하셔서 잠깐 인터뷰 했는데요. 제가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연출대로 해야 해서 조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리얼한 모습을 담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들이 장애인의 삶과 인식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유튜브는 상호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스스로 원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튜브의 파급력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 7〉은 평소에 다른 장애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즐겨보며, 장애인들의 영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거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튜버 혼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

튜버와 구독자 등 화제가 된 조회수 등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요. … 저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장애인 유튜브를 본 적 있어요. '저 학생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힘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상 처음에 '나의 도전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이것도 목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연구참여자 7〉

"제 영상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이래이래해서 불편한 점이 있겠구나.'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1〉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장애인의 삶을 그린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100% 주체화 되어 주제를 진행하기보다 타자화 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튜브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었다. 오히려 유튜브 매체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나 강압적인 내용으로 인해 그 의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유튜버 분들 보시면 장애인식개선을 너무 강조하는 게 없잖아 있고 교육적인 요소가 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말고 다 빼고 '나 스스로를 보여주자' 내 일상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식개선이 녹아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였어요"

〈연구참여자 8〉

"저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논란을 키우는 채널로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12〉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분석한 계기는 언급한 유튜브는 장애인들이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유튜브는 인종, 국가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들은 장애인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외에 그림 그리는 것, 영상 제작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기존 방송에서 재현된 장애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전복시키는 역설적인 영상들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유튜브란 '생명수', '삶의 전환점', '변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정동체험

그러면,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정동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정동은 기쁨, 슬픔, 욕망의 세가지 감정 이외에 다른 감정들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감정들도 모두 이 세 가지 감정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기쁨과 슬픔에 대한 정동을 살펴보고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외적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동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노자(Spinoza, 1677/2007)가 지적하듯이, 유적 존재로서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인 코나투스는 삶을 능동적으로 더 큰 완전성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수동적으로 더 작은 완전성을 향하게도 한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정서를 넘어서서 어떠한 대상과 사물을 만나는가에 따라 변화한다. 연구참여자들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도 이러한 코나투스의 발현에서 비롯된다. 유튜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소통의 장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기쁨과 슬픔의 정동 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의 유튜브 활동은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내·외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과 도전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연구참여자 1, 11〉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두 연구참여자는 중도 장애인으로 비장애인의 삶에서 장애인의 삶으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병실에서 지낼 때는 책을 읽거나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사색에 종종 잠겼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바쁜 삶으로 변화했다고 진술하였다. 들뢰즈의 정동 사유를 기반해 살펴보면, 기존에 병실에서 지냈던 감정들은 '심심하다', '멍하니'의 슬픔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 '활동적', '새로운 일'이라는 기쁨의 단어로 표현되고,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인 정서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삶의 변화가 너무 커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병원에 있었니까 일상이 책보고 밥 먹고 심심하면 저 가서 영화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유튜브 하고 나서는 엄청 활동적으로 바뀌었죠. 외적 활동이 많다 보니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미소) 물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정신적, 내면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저에게 만큼은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그 정도?"

〈연구참여자 1〉

"유튜브를 하는 게 내가 뭔가 공원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 나한테 새로운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공원에서 사색에 잠겨있었어요. … 어떻게 보면 따분한 일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영상 콘텐츠들을 구상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연구참여자 11〉

비장애인에서 중도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리적인 불안,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 장애를 입었다면, 이전의 사회 경험 정도에 따라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기존 생활 모두 부적응하기 때문인데, 불안, 자존심의 결여, 좌절감, 열등감, 소외감, 현실도피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가 긍정적인 자기보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서의 변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중도장애인이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기쁨의 정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튜브는 누구나 본인의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독립, 사회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다양한 삶의 변화가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쁨의 정동을 경험을 하였다. '인간관계', '친구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연구참여자 4, 9〉는 유튜브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유튜브와의 연결을 통해 외부로 신체적 확장이 가능하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증가하는 신체의 변이를 경험하였다.

"'유튜브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유튜브로 인해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인간관계도 많이 변했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니 영화배우가 되었고, 취직을 하게 됐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냥 다 변했어요. 유튜브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쌓이면서 제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다는 이들도 생겼어요. 어디 모임들에 가면 제 유

튜브를 보던 구독자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4〉

"변화라고 하면, 섭외가 와서 EBS에 방송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MBC 라디오에 나간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듣는 세상〉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전에 한 번 나가서 출연했었어요. 이거 말고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 인스타로 친해지고 싶다고 DM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친구 관계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의 기쁨의 정서는 외부활동뿐만 아니라 자신 내부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장애인들을 둘러싼 양식과 차별인 장애를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들에서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영상제작을 통해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 7〉은 '당당해진다',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라며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연구참여자 8〉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었지만 자신감이 생기면서 시선을 즐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스피노자는 우리의 본성을 작용하느냐 혹은 작용받느냐에 따라 능동적, 수동적으로 구분한다. 어떤 원인이 우리의 내·외부에 생길 때 스피노자는 '작용한다'고 한다(서정욱, 2019). 지금까지 인간의 신체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에 수동적인 기쁨으로 작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능동적 변용은 신체의 변용이 신체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다. 능동적 변용은 기쁨만이 능동적일 수 있다(Deleuze, 1969/2019). 그러나 기쁨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인 욕망을 통해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을 위한 코나투스를 발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긍정적인 정동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인 행위 실천에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쁨의 정동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인스타그램이나 방송으로 확장하고, '구독자'나 '친구관계'도 확장하는 코나투스가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유튜브 활동은 외부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부적인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튜브를 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보이는 틱증상과 그런 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제 단점을 극복하고 유튜브를 하는 모습이 멋지다'며 응원

이나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5〉

"어떻게 보면 내가 장애를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아 장애인이라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예시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오히려 자신하게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예전보다는 좀 더 당당해졌다는 변화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7〉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 예전에는 '쟤나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라고 느꼈는데 옷에 관심을 갖고 모델 일을 하면서 메이크업도 하고 자신을 꾸미다 보니 '오늘 메이크업 잘 먹었나보다', '옷이 예쁜가보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똑같은 시선이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 거죠. 자신감도 높아졌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긍정적인 정동체험이 있는 한편, 기쁨에서 슬픔으로 정서가 변이한 경험도 나타났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기쁨의 정서는 슬픔의 정서로 다시 돌아가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좌절감이나 회의감을 가지게 하였다. 슬픔의 정동은 더 적은 완전성으로의 이행으로 수동적인 변용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1〉은 휠체어를 타고 모든 지하철 노선을 촬영하다 아내의 말에 회의감을 느꼈고 촬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까지 경험하면서 자아 상실과 현실 회피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는 선택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유튜브 활동을 통해 기쁨의 경험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팬들과의 만남에서 응축된 과도한 기대와 관심이 오히려 기쁨에서 슬픔으로 정서 변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때 아내가 환승 영상을 뭘 그렇게 열심히 촬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환승 영상을 왜 그렇게 열심히 촬영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들면서 촬영 정체기가 왔어요."

〈연구참여자 1〉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잃게 됐어요. 내 자신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나를 숨

기고 싶어졌고 도망치고 싶어졌고 숨이 막힐 것 같았고 팬들의 관심이 싫어지고 스스로의 뇌가 썩었다는 생각까지 든 적이 있어요. 팬들의 애정과 관심에 힘을 얻고 좋아하면서도 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관심들이 때로는 숨막힐 때도 있거든요. 생각하고 신경쓸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영상 콘텐츠 하나에만 신경쓰기도 바쁜데, 팬까지 달라붙으니까 밀어낼 수도 당길 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과부하 상태가 오면서 유튜브를 잠시 쉰 적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4〉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아임뚜렛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연구참여자 7〉은 직접 장애 복지 카드를 인증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6〉의 악플은 다른 연구참여자와 달리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장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아임뚜렛 사건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은 악플에 시달렸어요. '장애인 아니잖아요!'라거나 '너도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네? 밥도 잘 먹고 요리도 잘하네? 야 나도 시각장애인 하겠다', '나도 시각장애인 유튜버임'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을 공개 안 하니까요. 근데 제가 얼굴 공개해도 시각장애인 티가 안 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일부러 땅콩 흘리고 줍는 척, 안 보이는 척, 가까이 코를 박고 보는 척 연기를 하면 그때 그 영상을 보면 믿어주실 건가요?'라고 했죠. 근데 그것도 의미는 없잖아요. 결국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는 영상을 노편집으로 직접 출력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걸 보고도 설마 의심한다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6〉

그러면 기쁨의 정서는 긍정적이고 슬픔의 정서는 부정적일까? 그것은 다만 더 작은 완전성으로의 이행일 뿐, 기쁨은 긍정이고 슬픔이 부정이라는 뜻이 아니다(Spinoza, 1677/2007).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슬픔은 더 작은 완전성의 코나투스일 뿐이다.

다음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슬픔의 정서가 다시 기쁨의 정서로 변이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댓글을 통해 상담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감동', '뿌듯함', '힐링'의 기쁨 정서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었던 기억은 … 제 영상 중에 한강 유람선 타고 63빌딩 가는 영상을 보고

서 '용기를 얻었다',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소통을 해주셨을 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이게 내가 허투루 이 영상을 만들었던 게 아니구나.' 저는 그 댓글이 제 인생에 현재까지 유튜브하면서 가장 큰 베스트 댓글이었죠. 제 영상을 휠체어를 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모차 끈 엄마들도 좋아해요. 같은 힘듦을 겪고 있는 동전의 한 면이죠.. '어 여기 여행해도 괜찮겠네요?' 내 휠체어 환승영상을 보면서 '아~ 지하철 탈 만하군요'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전보다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1〉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두 분을 상담해드렸어요. 한 분은 시각장애인 학부모이고, 다른 분은 남자친구분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상담을 통해 도움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 '그때 알려주셨던 보조기기를 써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힘들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좀 힐링을 하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리고 리뷰가 너무 깔끔해요'라는 댓글이 달리면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결과물이 쌓여가는 느낌, 성취감?, 심리적인 만족감이 가장 커요."

〈연구참여자 6〉

"댓글에 남겨주는 것 보고 만족도도 높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우연히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만나고요. 구독자라고 하면서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면 뭔가 저를 지지해준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이상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팬들과의 관계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의 정서로 변이하는 경험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정서가 '과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정서인 슬픔으로 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 사회적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감동', '뿌듯함', '힐링'의 능동적 정서인 기쁨으로 변이하기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슬픔의 정서로 인해 자존감 저하나 현실 회피의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중단했던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성취감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동 체험은 단지 사람과의 만남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선입견을 대할

때도 발생한다. 즉, 유튜브라는 공간과 자신의 신체가 적합할 때, 이 신체는 새로운 관계를 합성하고 작용 능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기쁨은 행복이나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슬픔은 불행이나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정동은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기쁨에서 슬픔으로의 이행으로도 역순환 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또 다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서가 변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에서 분석할 장애인에 대한 양식적 통념과 역설의 실천 방향과도 연관된다.

3) 양식적 통념과 역설의 실천 방향

그러면,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양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어떠한 역설적 실천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축적하며,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최현경·강진숙, 2020) 미디어가 장애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양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양식과 역설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고정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서 역설로, 역설에서 양식의 변화의 운동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가진다.

먼저 양식적 통념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아, 양식적 통념은 장애인들을 '불쌍하거나', '과장된 효과음'을 넣는 등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언급되었다.

> "TV 드라마, 영화 속 농인(청각장애인) 이미지는 '말을 못하고 수어만 사용한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수동적이고 어두운 성격일 것이다', 수어의 희화화 문제 등 그동안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 및 예능 등등, 청각장애인 농인을 직접 섭외해서 그 역할을 주면 되는데 청인이 직접 수어를 배워서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또한 가난하고 비극적이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
> 〈연구참여자 2〉

> "일단 시각 위주로 보는데 너무 자극적이다가 결론이에요. 그냥 시청률? 유튜브보다 더 어그로 끌고 포장을 잘해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데 수리를 잘하네 마네 등..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드려야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건데 과장해서 '우와'라든지, 온갖 용어를 붙여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거는 비장애인도 하기 힘든 건데' 라고 하는데요. 물론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 분이 이렇게 대단한 걸 하신다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6〉

"매체에 나오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장애 극복의 대명사'로 할 만한 것들? 장애는 극복의 대상도 아닌데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위대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물론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선천적인 장애로만 국한되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최근 프로그램이나 영화에도 장애 스펙트럼을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본 진술에서는 유튜브 영상 제작자의 입장이 아닌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미디어에서 장애를 '연기'하고 '묘사'한다는 것은 배우의 신체라는 공명판을 통해 강한 정동을 만들어내게 된다(Mamoru, 2013/2016). 또한 그것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촉발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적절한 신체의 변용이 보이고 '아쉽다'는 슬픔의 정동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광수씨가 틱장애 연기를 하셨는데, 실제 장애를 가진 분도 아닌데 연기하는 게...장애를 연기한다고 해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연구참여자 7〉

"영화나 드라마에서 청각장애인을 묘사할 때 잘 못 알아듣는 건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만 그치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장애의 경우에는 여러 번 들어봐야 이해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미안해지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나 고충을 표현해주는 부분이 잘 없다는 게 아쉽고요. 또 차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잘 안 들려도 어렸을 때부터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은 친구들은 소리를 잘 못 들어도 발음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묘사가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비장애인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적 묘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장애'만을 강조시킨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장

애인이 등장하는 상업적 영화들에서 대부분 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연기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는 배우 신하균과 이광수가 연기를 했고, 〈두 개의 빛: 릴루미노〉는 배우 한지민과 박형식, 〈형〉에는 아이돌 디오(도경수)가 맡아 연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면 장애인 배우의 영화는 어떠한가? 몇몇 연구참여자는 직접 방송과 영화에 출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독립영화 배우로 출연한 경험이 있었고, 〈연구참여자 11〉는 MBC 〈우리 동네 피터팬〉 프로그램, 〈연구참여자 8〉은 EBS 〈별일 없이 산다〉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이 영화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장애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과장되지 않은 연출이며, 여러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8〉은 방송가도 이전의 다큐멘터리와 달리 비교적 가벼운 프로그램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독립영화에 나오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과의 사전 미팅도 많고요. 독립영화는 행복한 모습도 보여주고 인물 중심으로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장애인 생활 중심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 같은 느낌의 프로그램이 생기는 편이고, 최근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섞여서 서로의 입장을 풀어내는 EBS 토크쇼 〈별일없이 산다〉가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지니까 그 전 〈인간극장〉이나 〈사랑의 가족〉과 같은 무거운 분위기의 프로그램들보다는 많이 가벼워지는 추세예요. 저 격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우리 동네 피터팬〉 검색하시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출연하겠다고 한 거예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하면 절대 출연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들이 다수의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과거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위의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장애 스펙트럼을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미디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장애보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과거 미디어 재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제작사 미디어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유튜브에서는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되었을 때, 고착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타인이 미디어를 제작하고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인식의 고착화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념들을 유튜브를 통해 정형화된 모습을 해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라독사, 즉 역설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들뢰즈는 역설은 양식을 전복시키는 것이며, 역설을 사유하는 주체는 문제를 읽어내고 맥락에 맞게 추구하는 주체이다(이정우, 2011). 특히 〈연구참여자 6〉은 '장애에 대해 언급할 때 미디어에서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한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기존에 장애인을 둘러싼 양식의 체제를 벗어난 주체로써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하였듯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다고해서 모두 역설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형성된 스테레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생산하여 다시 양식적인 모습을 생산하게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3〉의 진술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양식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해보아야 한다.

> "이건 제 생각이라기보단 미디어나 그런 곳들에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느낌? 젊은 연령층의 장애인 유튜버들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굳혀진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들을 깨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묘사는 대중매체나 미디어,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만 봐도 청각장애인 역으로 나오는 사람은 여성이거나 노모로 나오고."
>
> 〈연구참여자 3〉

유튜브 제작 활동을 통한 역설적인 사회적 실천으로는 강연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유튜브에서 활동한 것들을 토대로 기관에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나 자료들을 이용해 강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수동적이고 배움을 받아야하는 존재였다면, 연구참여자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위치에서 있는 전환점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 제작 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개인의 삶에 대한 내용, 장애 인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역설적 행위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 1인 방송 관련 된 박람회가 AT센터에서 열렸어요. 그것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연 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죠. '내가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됐는가?'였어요. 작년에는 전라도 광주 가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내가 크리에이터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었죠."
>
> 〈연구참여자 1〉

"대부분 비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로 나가요. 가끔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학생도 같이 들어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7〉

"구독자분 한 분이 장애인 자립 단체생활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용자들한테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센터 통해 강의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국회 입성했던 것도 척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는데 제 경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들뢰즈의 역설의 실천은 통념과 상식에서 벗어나 여러 갈래들 중에서 적합한 갈래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이라 설명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능동적인 행위는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닌 동등한 사회의 권리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유튜브가 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매개하고, 하나의 소통의 공간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었다. 반대로 외부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관계에도 기쁨의 정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1년간 장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장애를 밝힌 후 청각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책을 사고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 11〉의 진술과 같이 장애인 스스로도 비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 유튜버이기 전에 저도 장애에 대한 관심이 원래 없었어요. 이걸 청각장애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저도 청각장애인에 대해 책을 사고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저도 장애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보면 되고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공부하면서.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봉사활동 많이 다녔지만,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연구참여자 4〉

"장애인들도 빨리 뭔가 배우고 고치지 않으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없겠구나 생각했고요. 장애인식개선은 비장애인이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을 이해하고 또 비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선은 어렵죠."

〈연구참여자 11〉

기존에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만 하였다면 이를 역설적으로 장애인들도 이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역설적 행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중 〈연구참여자 1, 11〉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편집기술을 익혔으나,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유튜브에서 스스로 찾아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둘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 혼자 영상 편집을 독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는 〈연구참여자 1〉의 진술처럼 접근성의 문제나 〈연구참여자 2〉처럼 지원이 부족하다던지 〈연구참여자 11〉도 장애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017년도에 제가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해서 교육하는 곳을 찾아봤었죠. 돈 내고 교육 받기에는 애매해서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없을까?'하고 찾아보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패키지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싸~ 했는데 교육장이 다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찾아보다가 포기했죠. 대체로 교육장이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 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1〉

"1인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한 것도 좀 그렇고요. 1인 경기도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처럼 장애인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그냥 교육만 있지 진짜 '그 대상자에게 얼마 주겠다' 이런 게 찾기 어렵더라고요.. 경기도는 지원해서 합격하면 지원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교육 말고 제가 원하는 건 실질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제가 부천에 있을 때 복지관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쪽 근처에 있는 곳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양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욕망을 통한 역설적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양식으로 구축된 의미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식의 문제점들은 사회의 기본제도를 설계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Nussbaum, 2011/2015). 그러나 양식과 역설은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반드시 양식에서 역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바 역설에서 다시 양식으로 회귀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사유가 그렇듯 하나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성'을 지닌 사유로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는 것이다. 순환을 하는 것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이 차이점들을 통해 새로운 역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장애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양식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설과 양식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장애인들에 대해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스스로가 장애인의 전형성을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어떠한 정동체험을 하였으며, 양식과 역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장애인 차별/배제의 경험을 했고, 어떠한 계기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유튜브 영상 제작 계기는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유튜브는 유희와 정보전달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소통-인식개선-공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프로그램과 달리 '온전한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유튜브를 통한 정동체험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유튜브가 긍정

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불특정다수와 연결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플이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비롯해 배움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슬픔의 정서를 느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슬픔의 정서를 기쁨의 정서로 다시 변이시키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댓글 소통이나 상담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가 작용한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동체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사회적 양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유튜브를 통한 역설적 실천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 이미지 재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고, 연구참여자들의 방송출연제의에 대한 경험을 분석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장애를 자극적인 요소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들뢰즈의 양식 사유처럼,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흔히 비추어졌던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 혹은 자립이 힘든 상태로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양식을 모두 역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들뢰즈의 역설의 사유가 드러났다. 통념과 상식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활동들에서 나타난 차별/배제 경험, 정동 체험, 그리고 양식적 통념과 역설의 실천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장애인 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들의 욕망과 역설적 행위를 세부적으로 포착할 방법을 비롯해 성별 요인에 따른 특이성 발견, 그리고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중도장애인의 사례를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우선, 복지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작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은 개선하고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021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진행하듯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장애 이해 교육의 활용이 필요하다. 장애이해 교육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포괄해야 하며,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교육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이해 교육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모두 서로 양식적 통념과 편견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Bourdieu, P. (2001). *Langage et Pouvoir Symbolique*. Paris: Seuil.

Chang, S. (2019). A Study on the Virtuality of Superhero Transformation in the Movie Based on Deleuze's Generation Theory. *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22*(1), 78-86.

Cho, H. J. (2019, August 1). “In the era of one-person media, YouTubers with disabilities who communicate with the world”. *YTNRadionews*. URL: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11419473936

Cho, Y., & Ho, H. M. (2021).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tress of the Disabled. *isability & Employment, 31*(4), 5-22.

Choi, H.-K., & Kang, J.-S. (2020). A qualitative study on recognition of women’s media in the twenties and ‘becoming – wome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4*(2), 140-176.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4nd ed)*. Sage: Publications, Inc.

Deleuze, G. (1969). *Spinoza et le probleme de l'expression*.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Deleuze, G. (1978). *Lecture transcripts on Spinoza’s concept of affect*. Seo, C.-H., Kim, S.-W., & Self-Comment Translation Meeting (Trans.) (2005). *Non-material labor and multiple*. Seoul: Galmuri.

Deleuze, G. (1981). *Spinoza-philosophie pratiqu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Denzin, N. K. (1978). *Research Act, 2nd ed*. New york: McGraw-Hill.

Jeon, J. (2013). Exploring Disability Pride as Disability Identity and the Possibility of Disability Cultur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5*. 57-76.

Jeon, J.-Y. (2021). Discussion of the concepts of disability art and disabled art. *Korean Art Research, 32*. 195-215.

Jung, B., & Kim, S. (2013). Predicting and Explaining YouTube Users Continuance Intention to Generate and Share a Parod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0*(4), 131-167.

Kang, J., & Kim, D. (2019). Media Biography of ‘Becoming minority’ of video producers and activists related to the handicapped : Focusing on reproduc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disabled of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1), 286-324.

Kang, J.-H., & Im, Y.-H. (2011). Stereotyp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Korean Mov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15(2), 5-40.

Kang, J.-S. (2010). Blog use culture and technical imagination as a one-person media Focusing on Flusser's Kommunikologie. *Communication Theories, 18*(3), 2-34.

Kang, J.-S. (2014). Toward a Changing of Media Education Paradigm: Suggestion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Media Affectus Competence". *Communication Theories, 10*(3), 195-221.

Kang, J.-S. (2015). A Study Method on the Affectus Apparatuses and Subjectivation - Media Biography: Focusing on the Thinking of the Apparatuses and Subjectivation, Arrangement of Foucault, Agamben, and Deleuze. *Communication Theories. 11*(4), 4-37.

Kang, J.-S.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Dice in Communication and Media Education Research.* Seoul: Now

Kang, J.-S. (2019). *New Media thought and Culture*. Seoul: Now.

Kim, E. J. (2016). Visual technology and body image as organs without body.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25*, 137-164.

Kim, J., & Kim, B.-Y. (2018). Personal Media as Cultural Intermediaries, YouTube ChannelKorean Englishma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50-62.

Kim, M.-G. (201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nti-Stigma Efforts Using Independent Film Ma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0*(1), 5-34.

Lee, C.-W. (2011). Sign and affect in the thought of Deleuze. *Semiotic Studies. 29*, 375-377.

Lee, C.-W. (2020). *Deleuze, The Reason of the Monster*. Seoul: LeeHaksa.

Lee, D. W. (2021, February 14). [Exclusive] 1 YouTuber per 529 people..."The world's No. 1 YouTube Republic". *Moneytoday*,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311274021985

Lee, H. I. (2020, September 11). "A disabled person who was trapped at home comes out of the world through YouTube". *HanKooklibo*, 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22060005527

Lee, J. W. (2019, September 11). [Interview: YouTube creator] Dotfact, Rollaragorenim and Sunasoo's "minority". *news2day*. URL: http://www.news2day.co.kr/119165

Lee, J.-W. (1998). Deleuze and the ontology of events. *The Times and Philosophy*. Volume 9, No. 1. 139-167.

Lee, J.-W. (2011). *Philosophy of Events*. Seoul: Greenbee.

Lee, Y. H. (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disability broadcasting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Communication Theories, 17(3), 60-111.

Lee, Y. H., Choi, Y. M., Jin, S. H., & Cho, Y. H. (2021). OTT Era, A Study on Broadcasting Access Rights for Disabled Peopl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Non-RealtₒTime Broadcasting Service Usage Behavior of the Visual and Hearing Impaired.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38-83.

Lim, O. H., & Cho, W. I. (2018). Views for Disabilities in You Tube Videos on Development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2*(3), 87-107.

Mamoru, I. (2013). *The power of emotions Resonates with the media*. Tokyo: Serika Shobo.

Massumi, B. (2015). *Politics of Affect.* Cambridge: Pol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20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19/03/20 from https://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25

Noh, Y., & Ryoo, W. (2020). The spread of nationalism in the online space represented in YouTube - Focused on 'foreigner reaction' content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20,* 7-38.

Nussbaum, M.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Oh, C.-H. (2014). A Study of Communication Function of Broadcast Journalism on the Basis of G. Deleuzes Language Theory From the Fact Paradigm to the Event Paradigm. *Locality & Communication, 18*(2), 89-124.

Oh, S., & Kim, H. (2021). Mobility and depression among wheelchair use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2,* 135-163.

Park, J. P. (2021, March 3). Discussions with "Good Creators" about desirable internet broadcasting. *news1*, URL:https://www.news1.kr/articles/4229241

Park, J.-S., & Kim, Y.-C. (2020). Visually Impaired Facebook Users: In-depth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6), 43-76.

Park, S. (2020). Disability Discourse and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in Children's Literatur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6*, 143-171.

Seo, J.-W. (2019). *Reading Spinoza's Ethics*. Seoul: Sechang Media.

Shim, Y.-E. (2014). Disabled Literature on the Other. *Journal of Demorcry and Human Rights, 14*(2), 89-222.

Shin, J. S. (2019, June 18). Billie Eilish. Is there anyone else? YouTubers with disabilities and prejudices. *topdaily*. URL: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7574&replyAll=&reply_sc_order_by=C

Simondon, G. (1958).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Paris: Aubier Montaigne.

Spinoza, B. (1990). *Ethica*. Kang, Y.-G. (trans.) (2007). ETHICS.. Paju: Seogwangsa.

Spinoza, B. (1975). *Ethica*. Hwang, T.-Y. (trans.). (2014). ETHICS. Jeonju: Bihong Publishing House.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ndon: New Delhi

Sung, K.-H. (2019). *The aesthetics of Deleuze*. Paju: Greenbee.

Yang, J. H., & Noh, S. J. (2012). Representation of the Disabled People in Human Documentary : Case Study of KBS In Gan Kuk Ja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6*(3), 371-415.

Yang, J. H., & Noh, S. J. (2013). The disabled reproduced by a documentary specializing in the disabled. *The Joumal of Social Sciences*, *32*(1), 437-466.

Yon, H. S. (2015). The logic of affect and virtuality of resonance in Deleuze. *Epoch and Philosophy*, *26*(6), 187-217.

Yoo, S., Lee, Y., & Yu, H. (2018). Research on Creators Motivation to Select MCN and Dissatisfaction Factor as a Content Creato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62-72.

Yun, H., & Cho, E. (2020). The Experience of Youtuber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1*(1), 3-55.

최초 투고일 2021년 1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2월 10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2월 15일

부록. 참고문헌

강주현・임영호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5권 2호, 5-40.

강진숙 (2010). 1인 미디어로서의블로그 이용문화와 기술적 상상. 〈언론과 사회〉, 18권 3호, 2-34.

강진숙 (2014).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195-221.

강진숙 (2015). 정동의 장치와 주체화 연구방법-미디어 비오그라피.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4호, 4-37.

강진숙 (2016). 〈질적 연구 방법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서울: 지금.

강진숙 (2019). 〈뉴미디어 사상과 문화〉. 서울: 지금.

강진숙・김동명 (2019). 장애인 관련 영상제작자 및 활동가들의 '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비오그라피 연구.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286-324.

김문근 (2019). 영화제작을 통한 정신장애인 편견 개선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50권 1호, 5-34.

김은주 (2016). 시각 기술의 권력과 신체 없는 기관으로서의 신체 이미지. 〈한국여성철학〉, 25권, 137-164.

김정현・김보영 (2018). 디지털 문화매개자로서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6호, 50-62.

노영은・류웅재 (2020). 유튜브 콘텐츠에 재현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외국인 리액션'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0권, 7-38.

박성애 (2020). 아동서사문학의 장애담론과 소통 가능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6권, 143-171.

박정숙・김용찬 (2020). 시각장애인의 페이스북 이용 : 심층인터뷰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6호, 43-76.

박주평 (2021, 03, 03) "'착한 크리에이터'들과 바람직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논의". 〈news1〉. URL: https://www.news1.kr/articles/4229241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 Retrieved 19/03/20 from https://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25

서정욱 (2019). 〈스피노자의 윤리학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성기현 (2019). 〈들뢰즈의 미학〉. 파주: 그린비.

신진섭 (2019, 6, 18). "'빌리 아일리쉬'따로 있나, 장애·편견 개성으로 만든 유튜버들. 〈topdaily〉.

URL: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7574&replyAll=&reply_sc_order_by=C

심영의 (2014). 타자(the Other)로서의 장애인 문학. 〈민주주의와 인권〉, 14권 2호, 189-222.

양정혜・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한국방송학보〉, 26권 3호, 371-415.

양정혜・노수진 (2013). 장애인 전문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한국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437-466.

연효숙 (2015). 들뢰즈에서 정동의 논리와 공명의 잠재력. 〈시대와 철학〉, 26권 6호, 187-217.

오성은・김한성 (202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52권, 135-163.

오창호 (2014). 들뢰즈(G. Deleuze)의 언어이론으로 본 방송저널리즘의 소통기능에 대한 고찰.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권 2호, 89-124.

유수정・이영주・유홍식 (2018).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MCN 선택 동기와 창작자로서 불만족 요인에 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8호, 62-72.

윤형・조은총 (2020). 장애인 유튜버의 미디어 생산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의 재해석〉, 1권 1호, 3-55.

이동우 (2021, 2, 14). "[단독]국민 529명당 1명이 유튜버…세계 1위 '유튜브 공화국'". 〈머니투데이〉,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311274021985

이영희 (2021). 장애인방송 공익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3호, 60-111.

이영희・최영묵・진승현・조용하 (2021). OTT시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관한 연구 : 시·청각 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38-83.

이정우 (1998). 들뢰즈와 사건의 존재론. 〈시대와 철학〉, 9권 1호. 139-167.

이정우 (2011). 〈사건의 철학〉. 서울: 그린비.

이지우 (2019, 01, 23). '[창직 인터뷰:유튜브 크리에이터]⑫ 닷페이스, 굴러라구르님 그리고 수낫수가 논하는 '소수자'. 〈news2day〉, URL: http://www.news2day.co.kr/119165

이찬웅 (2011). 들뢰즈의 기호와 정서. 〈기호학 연구〉, 29권, 375-377.

이찬웅 (2020). 〈들뢰즈, 괴물의 사유〉. 서울: 이학사.

이혜인 (2020, 09, 11). "집에 갇혀 있던 장애인, 유튜브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다". 〈한국일보〉,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22060005527

임옥희・조원일 (2018). 유튜브의 발달장애 관련 영상에 나타난 장애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권 3호, 87-107.

장애인복지법 (2021. 12. 21.). URL: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87

장세영 (2019). 들뢰즈의 생성론에 근거한 영화 속 슈퍼히어로 변신의 가상성. 〈한국일러스트학회〉, 22권 1호, 78-86.

전지영 (2021).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 〈한국예술연구〉, 32호, 195-215.

전지혜 (2013). 장애 정체감·자부심, 그리고 장애문화의 가능성의 탐색. 조한진(편),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175-205). 서울: 학지사.

정보라・김성철 (2013). 뮤직비디오 패러디 제작 및 공유에 대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행동의도와 그 영향요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권 4호, 131-167.

조예진・현명호 (2021). 장애인의 자존감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장애수용도의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31권 4호, 5-22.

조현지 (2019, 08, 01). "〔같이의 가치' 1인 미디어 시대,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 유튜버". 〈YTN라디오 뉴스〉, URL: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11419473936

최현경・강진숙 (2020). 20대의 미디어 여성 이미지 재현에 대한 인식과 '여성-되기'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34권 2호, 140-176.

Bourdieu, P. (2001). *Langage et Pouvoir Symbolique.* Paris: Seuil. 김현경(역). 〈언어와 상징권력〉. 파주: 나남.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nd ed). 조흥식・정선욱・김진숙(옮).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eleuze, G. (1969). *Spinoza et le probleme de l'expression.*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현영종・권순모(공역) (2019). 〈스피노자와 표현 문제〉, 서울: 그린비출판사

Deleuze, G. (1978). *Lecture transcripts on Spinoza's concept of affect.* 서창현·김상운·자율평론 번역모임(편역) (2005).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Deleuze, G. (1981). *Spinoza-philosophie pratiqu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박기순(역). (1999). 〈스피노자의 철학〉. 서울: 민음사.

Denzin, N. K. (1978). *Research Act, 2nd ed.* New york: McGraw-Hill.

Massumi, B. (2015). *Politics of Affect. Cambridge: Polity.* 조성훈(옮). (2018). 〈정동정치〉. 서울: 갈무리.

Nussbaum, M.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한상현(역). (2015). 〈역량의 창조〉. 파주: 돌베개.

Simondon, G. (1958).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김재희 옮김 (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Spinoza, B. (1990). *Ethica.* 강영계(역). (2007). 〈에티카〉. 파주: 서광사.

Spinoza, B. (1975). *Ethica.* 황태연(역). (2014). 〈에티카〉. 전주: 비홍출판사.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ndon: New Delhi.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伊藤守 (2013). *情動の権力 メディアと共振する身体*. 東京: **せりか**書房. 김미정(옮). (2016). 〈정동의 힘: 미디어와 공진하는 신체〉. 서울: 갈무리.

국문초록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 활동과 정동 체험에 대한 사례연구
들뢰즈와 과타리의 '정동'과 '양식-역설'의 사유를 중심으로

최현경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 활동과 정동 체험을 탐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이고 역설적인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로서 스피노자를 비롯하여 들뢰즈와 과타리의 정동 사유에 기반해 유튜브 제작활동을 통한 정동 체험을 분석하고, 양식과 역설의 사유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의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스테이크의 도구적 사례연구를 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로 선정하여 영상 제작 활동의 사례들에 초점을 두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배제의 경험과 유튜브 영상 제작 계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유튜브를 선택한 이유는 방송과 달리 직접 구성·제작·편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주제로 장애인의 삶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유튜브는 유희와 정보 전달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구독자들과 댓글,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인식개선-공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유튜브를 통해 어떠한 정동체험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동은 슬픔에서 기쁨, 기쁨에서 슬픔으로 운동성을 지닌 정서의 변이이다.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내·외부적으로 기쁨의 정동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댓글 소통이나 상담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기쁨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악플, 기대감으로 인한 과부하와 같은 슬픔의 정서도 경험하였지만 사건을 통해 슬픔에서 또 다시 기쁨으로 이행하는 정서의 변이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양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유튜브를 통한 역설적 실천에 대해 분석하였다. 들뢰즈의 양식 사유처럼,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장애를 자극적인 요소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역설적 실천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유튜브 영상 제작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의 문제와 사회적 통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성과 차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핵심어 : 들뢰즈, 장애인, 정동, 유튜브, 역설